

“나를 따르라”... ‘황병일 매직’ 계속된다

‘황병일 매직’은 계속된다.

프로야구 2009시즌은 끝났지만 KIA 타이거즈 황병일 코치의 하루는 여전히 짧다. 해야 할 고민도 많고, 12월 스케줄도 빡빡하다.

얼마 전 출범한 제 2기 조범현호의 수석코치를 맡게 되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컸다. 시즌이 끝나고 한·일클럽 챔피언십과 우승팀으로서의 각종 행사를 소화하느라 예년같이 훈련을 하지 못한 것도 고민이다.

지난주 새로 구성된 코칭스태프와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왔던 황 코치는 7일에는 “2009 조야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황 코치는 이날 최희섭·나지완 등 우수 주역들을 조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코치상을 수상했다.

8일에는 조범현 감독과 함께 8개구단 코칭스태프 회의에 참석하는 등 2010시즌에 대한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훈련도우미 자칭

성탄휴일도 만남...선수들과 포항캠프

황 코치는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가해 제자들과 기쁨을 함께 한 뒤 14일 구단 남회식 참가를 위해 광주로 자리를 옮긴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남회식 이후에도 황 코치의 한 해는 끝나지 않는다.

황 코치는 15일 고향인 포항으로 출발한다. 지난해 최희섭·나지완·안치홍 등과 포항에 자율캠프를 차리고 12월을 보냈던 황 코치는 이번에도 선수들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최희섭·나지완·안치홍 등 포항에서 의기투합했던

삼형제의 활약으로 ‘포항캠프’의 효력이 증명되면서 캠프 규모가 늘었다. 한방으로 인성역전에 성공한 김상현을 비롯해 새신랑 이현근, 분위기 메이커 박기남 등도 포항에 집을 풀기로 했다. 시즌 말 부진했던 이용규도 황 코치로부터 특명을 받고 포항에 합류한다.

크리스마스도 없다. 황 코치는 “훈련을 하는 때는 휴일이 따로 없다. 크리스마스라고 예외는 아니다”며 “크리스마스에도 포항은 야구 열기로 뜨거울 것이다”고 밝혔다. 포항캠프는 이날 말까지 계속된다.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나는 2009년이지만 황 코치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다. 2군 타격코치에서 1군으로 자리를 옮긴 뒤 시즌 초반 좀처럼 터지지 않는 방향이 탓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단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장점을 부각시키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줬다. 생각하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황 코치의 중요한 일과였다.

황 코치의 노력은 우승으로 돌아왔다. 시즌 내내 팀 타율이 꼴찌에 머물렀지만 ‘한방’과 집중력을 앞세워 기적같은 우승을 일구어 냈다.

김원섭의 군산 끝내기 역전포, 나지완의 한국시리즈 끝내기 역전포 등 극적인 순간에서 선수들은 황 코치의 조언과 믿음에 공을 돌리는 등 ‘황병일 매직’이 빛을 발한 한 해였다. 수석코치로 새로운 시즌을 앞둔 황 코치는 두 번째 매직쇼를 위한 담금질로 12월을 잊었다.



(황병일 수석코치)

허정무호 남아공 전훈 내일 예비명단 발표

축구 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원재 축구협회 홍보부장은 허정무 감독이 10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내년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태극전사 예비명단 30여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허정무 감독은 이 자리에서 대표발탁 배경과 월드컵 조 추첨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 명단은 2009-2010시즌이 진행 중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창용(볼턴), 설기현(풀럼), 조원희(위건)와 프랑스 무대에서 뛰는 박주영(AS모나코), 독일 분데스리가의 차두리(프라이부르크) 등 해외파들은 대부분 제외되고 국내와 위주로 구성된다.



장미란·이봉주·황경선 국민훈장 한국 여자역도의 영웅 장미란, 국민미리토너 이봉주,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황경선(왼쪽부터)이 8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및 체육발전유공자 훈포장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청룡장을 수여받은 뒤 다른 수상자들의 수상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박지성 풀백으로 뚝뚝?

FIFA ‘올해의 선수’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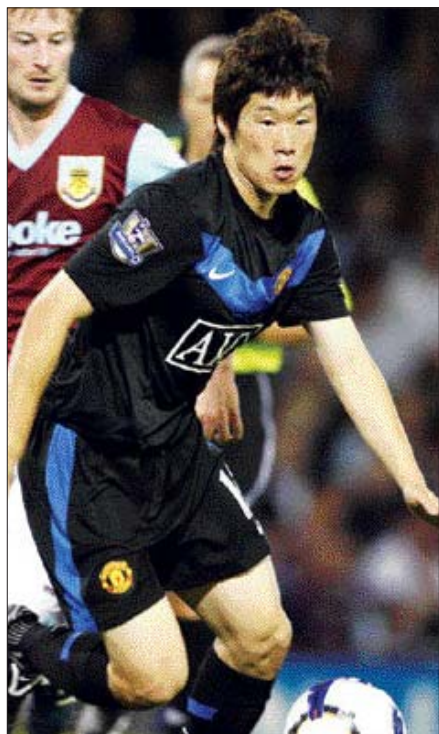
호날두·메시·카카 등 5명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 후보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카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사비 등 5명으로 압축됐다.

FIFA는 세계 각국의 축구대표팀 감독과 주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이들로 구성된 최종후보 명단을 확정했다고 8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최종후보 모두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사실은 사실이 두드러진다. 호날두(포르투갈)와 카카(브라질)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고 메시(아르헨티나), 사비, 이니에스타(이상 스페인)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다.

FIFA는 오는 2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들 가운데 1명을 골라 올해의 선수로 시상할 계획이다.



주전 수비진 8명 줄부상

오른쪽 수비 기용될수도

‘전천후 플레이어’ 박지성(28)이 수비벽에 균열이 생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까.

박지성이 VfL 볼프스부르크(독일)와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뚝 뚝하는 전방이 나왔다.

맨유는 9일 오전 4시45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 볼프스부르크와 대회 조별리그 B조 6차전을 치른다.

맨유는 3승1무1패(승점 10)로 이미 각 조 2위까지 오르는 16강 진출을 확정해 이번 경기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2승1무2패(승점 7)로 CSKA 모스크

바(러시아)와 동틀을 이루고 있어 승리가 절실한 형편이다.

볼프스부르크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는데 맨유는 수비진의 줄부상까지 겹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맨유는 부상으로, 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경기에 뛸 수 없는 수비수가 무려 8명이나 된다. 중앙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를 비롯해 조니 에반스, 존 오세, 게이 네빌, 쌍둥이 형제 하와엘과 파비우 다 실바, 웨스브라운이 뛸 수 없다. 중앙수비수 네마나 비디치도 감기에 걸려 이번 독일 원정길에서 빠졌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지난 6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4-0 승) 중 미드필더 마이클 캐릭과 왼쪽 풀백 파트리스 에브라에게 중앙 수비를 맡기고 미드필더 라이언 기스와 대런 플래처를 각각 좌·우 풀백으로 세우는 교육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명타자·유격수 황금장갑 ‘핫코너’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프로야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오후 열린다.

투수의 경우 평균자책점 3.00 이하이면 14승 또는 25세이브 이상의 기록이 필요하는 등 포지션별로 후보 선정 기준이 있다. 개인 타이틀을 따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연말에 시상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활약도 골든글러브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규시즌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달성한 KIA에게는 유리하다.

투수 부문은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외국인 투수 로페즈가 유력하다.

로페즈는 한국시리즈에서 완봉승을 포함해 혼자 2승을 올리며 분투했다. 한국무대 진출 첫 해에 14승을 거두며 다승 공동 1위도 차지했다.

지난해 수상자인 김광현(SK)은 올해도 평균자책점, 승률 1위에 올랐지만 부상으로 중도에 시즌을 접었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다.

포수도 호랑이 군단의 안방마님 김상훈(KIA)에게 우승 프리미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루에서는 최희섭(KIA)과 박정권(SK)이 경쟁한다. 최희섭은 홈런 2위, 타점 공동 3위, 타격 11위로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의 위용을 뽐냈다. 박정권은 페넌트레이스 성적에서는 떨어지지만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에서 SK 공격을 혼자 이끈다시피 하며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2루수에는 신인인 미스터 올스타의 영예를 안은 안치홍(KIA)이 있지만 성

적(타율 0.235)은 좀 부족하다. 타율 0.350에 최다안타 2위 정근우(SK)가 성적표상으로는 가장 낮고 수비율 0.992에 20홈런·20도루를 해낸 신명철(삼성)이 복병이다.

핫코너 3루에는 김상현(KIA)이 버티고 있다. 정규리그 MVP 김상현 앞에서는 김동주(두산), 이대호(롯데)도 역부족이다.

수비를 중시시 여기는 유격수는 최대 격전지다. 수비율은 손시현(두산)이 0.982로 5명의 후보 중 가장 낮다. 타격은 손시현과 나주환(SK), 강정호(히어로즈)가 모두 2할8푼대로 엇비슷하다. 장타력은 23홈런을 때린 강정호가 돋보인다.

10명의 후보 중 세 명을 뽑는 외야수 부문에서는 타율·득점·출루율·장타율 3위, 최다안타 1위, 타점 2위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오른 김현수(두산)가 골든글러브 1순위다.

타격왕 박용택(LG)은 홍성흔(롯데)과 막판 타율 경쟁에서 정정당당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지만 타율 1위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타이거즈 명품 다리’ 김원섭(KIA)은 실책없이 수비율 100%를 자랑한다. 타율 0.301로 수준급이고 KIA 우승에 기여하고 시즌 중 만성간염으로 입원하면서 분전을 했다는 플러스 요인을 지니고 있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2년 연속 타격 2위에 머문 홍성흔과 타율 0.302, 17홈런, 94타점을 때리며 두산 중심타자로 자리 잡은 최준석, 개인 성적(타율 0.332, 26홈런, 100타점)에서는 A급인 LG의 용병 페타지니가 예측 불허의 점점을 벌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축제
★ 행사기간 : 12.2, 28까지
객실 ₩110,000 (朝食·세탁·내외 포함)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한상당까지)
고객 사은 주점 이벤트, 한식당 스테이크 축제, 2009. 12.21 Holiday New Year Party, 노벨홀 오픈 기념 한식당 축제
★ 신양 북콘서트 Tel. 061-228-0000